

하락세 멈춘 쌀값...5개월만에 반등

지난해 10월부터 하락 지속... 지난 25일 20kg당 4만8417원 0.1%↑
정부 쌀값 안정 대책에 민간 불안 해소·인 쌀 소비 감소세 완화 영향

추락하던 산지쌀값이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쌀값은 수확기 이후 줄곧 하락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공매 미실시 등의 쌀값 안정 대책들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kg당 4만8417원으로 전월(2월 15일) 대비 0.1% 상승했다.

산지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5만4388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꺾임이 추락해왔다.

통계청은 매달 5·15·25일 산지쌀값의 비추정 평균가격을 공개하는데, 산지쌀값 증감은 지난해 10월 15일(20kg 기준 2001원↓)을 시작으로 13회 연속 감소했다.

쌀값 하락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농협의 창고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벼로 가득차고, 유통업체들은 가격하락이 예상되

는 벼를 재고부담으로 인해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한 뒤에도 가격을 낮춰 팔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하락폭은 점차 완화돼왔다. 산지쌀값은 지난해 10월 평균 3.1% 하락했으나, 11월(-1.0%), 12월(-0.16%)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좁혔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전월 대비 3원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지난달 25일에는 42원(0.1%) 상승해 반등에 성공했다.

앞서 정부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t 사료용 처분, 민간재고 5만 t 해의 원조용 매입 등의 대책 방안을 내놴다.

정부가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면서 산지에서도 가격하락 및 재고부담을 느껴 벼 구매를 망설이던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불안감이 해소

된 것도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쌀 수요 증가에 따른 쌀값 안정화가 전망된다.

또 매년 '1인 가구' 증가세에 따라 육류 및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쌀 소비량 감소폭이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점도 산지쌀값 반등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 대비 0.3kg(0.6%) 감소해 당초 지난해 연간 쌀 소비량 예상치였던 54.6kg보다 1.8kg 높았다.

매년 쌀 재고량이 떨어지는 5월말 산지쌀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쌀 수요 하락폭이 예상치보다 낮고, 정부의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에 따라 산지쌀값이 이른 시기에 반등하게 되면서 농립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쌀값 상승 시기가 이르면 3~4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확한 쌀 수요량을 예측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쌀 소비 부양책 및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봄, 한해 농사일 첫걸음 떼는 계절

봄철농사 준비...꽃 구경도 좋지만 썩·냉이 깨며 힐링하세요

3월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살랑이는 바람은 생물의 생명점을 자극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게 하고, 적당히 내리쬐는 햇살은 이를 찬양하듯 빛난다.

농사란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계절을 따르며 자라는 작물을 가꾸는 일이므로 모든 과정이 때가 있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과 같이 온갖 지식과 사랑을 쏟아부어야만 풍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봄철농사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봄철은 한해 농사일의 첫걸음을 떼는 계절이다. 한해 농사에서 알찬 열매를 거두는 게 거두는 거 하는 것은 봄철 농사일을 제철에 잘하는 지 못하는지에 달려있다. 우리 선조들은 어느 한 계절의 농사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지만, 특별히 한해 농사의 출발인 봄철 농사를 중요하게 여긴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전수됐다. 3월이면 어김없이 전농업이 모 기르기에 필요한 법씨와 모판흙, 소독약제 준비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 농약과 각종 농자재를 점검한다.

또 보리류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관리와 사료작물 웃거름에도 신경을 쓰고 감자·고구마 육묘관리와 마늘·양파 노균병 예방, 시설채소 곰팡이병 확산에 대비한다.

도시농부들 역시 일찌기 텃밭에 나와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며 한해 농사계획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소박하지만 작은 결실을 바라며 새해 농사일에 나선다. 이 기간에 삼이나 호미 등 영농자재는 물론 상추씨 같은 종자까지 할인점인 기쁨속에 이름을 올릴 정도라고 하니 요즘 텃밭

가꾸기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살랑 되듯 부는 바람에 마음 설레는 3월은 유혹의 계절이기도 하다. 겨우내 움추렸던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은 매화다. 언 땅 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는 봄꽃 중에서 가장 이르게 개화하는 꽃으로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꽃망울을 터뜨린다. 3월 말에는 산수유꽃과 개나리꽃이 봄을 알린다. 그리고 벚꽃과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3~4일 정도 늦게 피어나 4월 초·중순에 만개한다. 행락철로 꽃놀이가 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꽃과는 별개로 봄철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것이 있으니, 길가 언덕이나 논밭 고랑에 지천으로 있는 썩과 냉이 등이 그것이다. 조금 있으며 주변 야산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내밀고 사리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비가 내리면 썩썩 자라는 고사리를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다.

최근 광주전을 걷다 웅기종기 모여 썩을 캐고 있는 어른들을 목격했는데 20여 년 전 고향집에 등자를 들고 살던 아내와 같이 썩 캐러 갔던 때가 생각났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지금도 텃밭 근처에 자란 썩과 냉이를 뜯기를 좋아한다. 봄이 선사하는 영양을 한껏 섭취하면 행복하기 때문이란다.

5월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경칩(驚蟄)이다. 선인들은 이날 보리씨의 성상을 보고 한 해 농사 풍흉을 점치고 무너진 흙담을 보수하며 한해 농사일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농사가 만사다. 이제, 우리도 힘차게 한해 농사를 시작해보자. /bigkim@kwangju.co.kr

과일값 고공행진...농식품부 "못난이 과일 대폭 푼다"

과일값 할인행사 지원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물량을 더 공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체도 공급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 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성과 맞지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사 관계자들에게 "부족한 국산 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 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은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일 가격은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의 한 과일가게에서 못난이사과를 판매하고 있다.

에 따르면 사과 소매가격은 전년 기준 10개에 2만9467원으로 1년 전보다 29.3% 비싸고, 배는 4만2127원으로 48.2%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교적 값싼 대체과일이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과일 비정형과 판매 및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미 '금사과'인데...축구장 4000개 크기 사과밭 사라진다

농촌경제연구원, 2033년까지 사과 재배 면적 8.6% 감소 전망

사과 재배면적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8.6%, 축구장 4000개 크기 가장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 예상면적은 3만 3791ha로 지난해(3만 3789ha)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KREI 연구원은 사과 재배면적이 연 평균 1%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는 2033년에는 올해보다 2891ha 감소한 3만900ha까지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축구장(0.714ha) 4000개가 넘는 면적에 달한다.

특히 사과 성목(다 자란 나무) 면적은 지난해 2만4687ha에서 오는 2033년에는 2만2800ha 내외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품종 갱신과 노령화에 따른 폐원, 타 품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어 유목(어린 나무) 면적은 지난해 9102ha에서 2033년 8100ha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KREI 연구원은 지속적인 사과 재배면적 감소세에 사과 생산량 역시 감소해 올해 50만2000 t에서 오는 2033년 48만 5000 t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장윤영 기자 zzang@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 방제 효과 없어"

농촌진흥청, 소각 자제 당부

농촌진흥청은 3일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지난 2020~2021년 전북·충남·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 논두렁 소각으로 얻는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애벌레·유충·유충 등 해충 비율은 5~17%로 낮았지만, 거미류·기생벌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벼 생육기인 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그렇지 않은 논이

해충 피해 발생 차이는 거의 없었다.

농진청은 이밖에 고춧대나 갯대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산발 발생 위험을 키운다며 파쇄를 권장했다.

농진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 등과 함께 고령 농업인이 많은 마을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봄철 영농 활동을 앞두고 농경지 정비와 영농부산물 처리가 각 농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은 파쇄지원단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자제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발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1954-2024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4. 2. 22(목) ~ 28(수) · 전형일: 2024. 2. 28(수) 18시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정시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4. 2. 22(목) ~ 28(수)

인터넷접수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